2021년 1월 26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 변종 코로나 우려 불구 상승 마감

장중 경제봉쇄 이슈로 하락 후 개별 이슈로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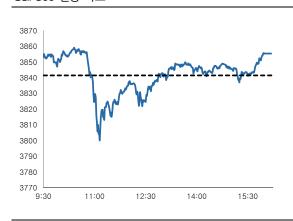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①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②개별 기업 이슈

미 증시는 추가 부양책 통과 기대 및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 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출발. 그러나 상승하던 유럽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봉쇄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자 급격하게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하자 미 증시도 고점 대비 2% 하락 하는 등 변동성 확대. 다만, 일부 개별 기업들이 호재성 재료로 강세를 보이자 나스닥은 재차 상승 전환하며 마감(다우 -0.12%, 나스닥 +0.69%, S&P500 +0.36%, 러셀 2000 -0.25%)

미 증시는 ①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②개별 기업 이슈에 따라 변화. 유럽을 비롯한 미 증시는 갑작스러운 매물이출회되며 고점 대비 2% 넘게 하락하기도 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 이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정책이 화두가 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프랑스가 봉쇄 기간을 3 주 연장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과 영국, 이탈리아 등이 입국 금지나 자가 격리 확대 등을 발표 한 점, 바이든 행정부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남미, 유럽에 대한 입국 제한 발표를 언급한 점이 부담. 더불어 일부 투자은행들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복소비가 2022 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파우치 소장도 백신 배포 지연으로 더 많은 변이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 한 점도 부담. 이 여파로 에너지, 항공, 레저 등 컨텍트 관련 종목 중심으로 매물 출회

그렇지만 변종 바이러스 문제 및 경제 봉쇄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당시는 영향을 주지 않다가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 팩트셋에 따르면 표본수가 적지만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후 5 년 평균 0.9% 상승을 했으나 이번 4 분기에는 오히려 1.2% 하락했다고 발표. 결국 시장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다 보니 악재성 재료가 유입되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 그렇지만 이날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킴벌리클락(+3.25%)이 자사주 매입 발표하자 급등하며 필수 소비재의 상승을 이끌고 테슬라(+4.03%)가 독일 배터리 공장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호재성 재료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는 지속되는 가운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할 듯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3,208.99	+2.18	홍콩항셍	30,159.01	+2.41
KOSDAQ	999.30	+1.97	영국	6,638.85	-0.84
DOW	30,960.00	-0.12	독일	13,643.95	-1.66
NASDAQ	13,635.99	+0.69	프랑스	5,472.36	-1.57
S&P 500	3,855.36	+0.36	스페인	7,897.30	-1.73
상하이종합	3,624.24	+0.48	그리스	762.13	-2.16
일본	28,822.29	+0.67	이탈리아	21,735.95	-1.6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만·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강세 Vs. 컨텍트 관련주 부진

테슬라(+4.03%)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독일에서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16% 향상 시킬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에 힘입어 상승했다. 애플(+2.77%)은 웹부시가 눈에 띄는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175달러로 상향 조정하자 강세를 보였다. 킴벌리클락(+3.25%)이 양호한 실적과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자 상승 했으며 P&G(+1.72%), 클라록스(+4.75%)등 생활필수품 관련 종목들의 강세를 이끌었다. 모더나(+12.20%)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긍정적인반응을 보인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했다. 화이자(+2.00%), 바이오앤택(+2.00%)등도 상승했다.

한편, 게임스탑(+12.20%), 배드배스앤비욘드(+1.56%), AMC(+10.19%), 아이로봇(+17.05%) 등 헤지 펀드들의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유입되자 손실을 메우기 위한 환매가 유입되며 급등했다. 블랙베리(+28.42%)는 아마존 클라우드와 차량용 소프트웨어 계약 체결 소식에 힘입어 급등했다. 반면, 경제 봉쇄 이슈가 부각되자 엑손모빌(-1.12%), 코노코필립스(-0.26%) 등 에너지와 부킹닷컴(-2.31%), 카니발(-4.95%)등 레저 여행, 델타항공(-2.75%), 보잉(-1.20%) 등 항공기, GM(-3.63%), 포드(-2.00%) 등 자동차는 부진했다. JP모건(-1.25%), BOA(-1.24%)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퍼스트솔라(-1.62%)등 태양광 업종은 부양책논란이 향후 정책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유입되며 하락 했다.

주요 ETF

1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31%		대형 가치주 ETF(IVE)	-0.05%	
에너지섹터 ETF(OIH)	-3.08%	중형 가치주 ETF(IWS)	-0.14%	
소매업체 ETF(XRT)	소매업체 ETF(XRT) +1.75% :		-0.17%	
금융섹터 ETF(XLF)	-0.73%	대형 성장주 ETF(VUG)	+0.64%	
기술섹터 ETF(XLK)	+0.84%	중형 성장주 ETF(IWP)	-0.1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99%	소형 성장주 ETF(IWO)	-0.12%	
인터넷업체 ETF(FDN)	+0.16%	배당주 ETF(DVY)	+0.36%	
리츠업체 ETF(XLRE)	+0.9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3%	
주택건설업체 ETF(XHB)	-0.1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4%	
바이오섹터 ETF(IBB)	+1.86%	미국 국채 ETF(IEF)	+0.40%	
헬스케어 ETF(XLV)	+0.65%	하이일드 ETF(JNK)	0.00%	
곡물 ETF(DBA)	+0.74%	물가연동채 ETF(TIP)	+0.26%	
반도체 ETF(SMH) +0.39% L		Long/short ETF(BTAL)	+1.44%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14.17	-1.06%	-2.61%	+8.63%
소재	465.88	-0.54%	-1.72%	+4.02%
산업재	743.26	-0.69%	-1.04%	-0.04%
경기소비재	1,372.35	+0.31%	+3.41%	+7.60%
필수소비재	675.78	+0.91%	+0.00%	-1.34%
헬스케어	1,379.86	+0.65%	+1.22%	+6.41%
금융	500.26	-0.76%	-2.56%	+4.01%
IT	2,359.62	+0.88%	+5.30%	+4.70%
커뮤니케이션	226,98	+0.37%	+6.34%	+4.43%
유틸리티	325.91	+1.95%	+1.74%	+5.42%
부동산	231.22	+0.82%	+2.22%	+4.1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매물 소화 속 자동차 업종 실적 발표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2.07% MSCI 신흥 지수 ETF 는 0.75% 상승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02.8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 처리 기대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되며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순매수 기조 속 3,200pt 를 상회하며 마감 했다. 특히 수출 및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었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주식시장은 유럽과 미국의 경제 봉쇄 이슈가 부각되며 매물 출회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보복 소비 지연 우려가 부각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약화된 점도 부담을 줬다. 물론 개별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 또한 특징이었다.

이러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화 요인은 전일 한국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들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 매물 출회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백신 접종 지연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경기 회복 둔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은 경기 민감주를 비롯한 컨텍트 관련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GDP 성장률(전망 yoy -1.7%)을 비롯해 자동차 업종의 실적 발표에서 전기차 전략 발표 여부도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달라스 지역 제조업 둔화

1 월 달라스 연은 지수는 전월(10.5) 보다 둔화된 7.0 으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생산 지수가 전월 26.8 에서 4.6 으로 급락한 가운데 신규 수주도 19.3 에서 6.3 으로 설비 가동률도 19.2 에서 9.2 로 부진했다.

12 월 시카고 국가활동 지수는 전월(0.31) 보다 양호한 0.52 로 발표되었으며 3 개월 평균도 0.59 에서 0.61 로 상승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항목을 보면 생산 및 수입은 0.13 에서 0.44 로 개선 되었으나 고용은 0.15 에서 0.13 으로 판매 및 재고는 0.09 에서 0.05 로 부진했다. 다만 기준선인 0을 넘어서 있다. 개인 소비 및 주택 부문은 -0.06 에서 -0.09 로 발표돼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미 국채금리 하락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부각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장중에 경제 봉쇄 이슈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1.9 조 달러 규모의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 처리 기대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더불어 이란의 유조선을 인도네시아가 압수하자 중동 이슈가 부각되었으며, 카자흐스탄 유전이 정전으로 공급 중단 되었다는 소식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유럽의 경제 봉쇄 우려가 높아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유입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독일 경제지표 둔화 및 각국의 경제 봉쇄 이슈가 부각되자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소폭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여타 신흥국 환율은 보합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

국채금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1.9 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자 하락했다. 더불어 유럽과 미국 등이 국경 폐쇄 이슈가 부각되는 등 변종 코로나 우려가 높아진 점도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2 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57 배)을 상회한 2.67 배를 기록하고 간접 입찰 또한 12 개월 평균(51.2%)을 상회한 56.6%를 기록하는 등 채권수요가 높아진 점도 하락 요인 이었다.

금은 변종 코로나 이슈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달러 강세로 0.1%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품목별 혼조세로 마감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82%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2.77	+0.96	+0.67	Dollar Index	90.378	+0.16	-0.43
브렌트유	55.88	+0.85	+2.06	EUR/USD	1.214	-0.25	+0.52
금	1,859.00	-0.05	+1.38	USD/JPY	103.77	-0.01	+0.08
은	25.484	-0.28	+2.49	GBP/USD	1.3663	-0.17	+0.56
알루미늄	2,012.00	+0.88	+2.03	USD/CHF	0.8881	+0.28	-0.30
전기동	7,969.00	-0.36	-0.03	AUD/USD	0.771	-0.06	+0.38
아연	2,705.50	-0.35	+0.86	USD/CAD	1.2744	+0.09	-0.10
옥수수	511.50	+2.20	-3.76	USD/BRL	5.4672	-0.06	+3.22
밀	648.50	+2.21	-4.00	USD/CNH	6.4879	-0.14	-0.14
대두	1,343.50	+2.42	-5.17	USD/KRW	1100.70	-0.23	-0.29
커피	123.25	-0.64	-3.82	USD/KRW NDF1M	1102.84	-0.24	-0.1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028	-5.77	-5.57	스페인	0.071	-5.00	-0.60
한국	1.777	+2.20	+6.70	포르투갈	0.019	-4.90	+0.40
일본	0.050	+0.10	-0.50	그리스	0.668	-1.90	-1,10
독일	-0.550	-3.80	-2.30	이탈리아	0.677	-7.30	+4.8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